

데스크 시각

코리안리저의 품격과 FA



최재호 사회부장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6일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정한 FA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 마지막 날. 이날 하루동안 구단과 선수 사이에 오간 돈 규모만 총 395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1일까지 13명이 계약해 몸값 총액은 555억6000만 원이나 됐다. 지난해 523억5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소문으로만 무성한 플러스 알파까지 오고 갔다면 그 규모는 종잡을 수조차 없다.

FA 광풍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2~3년간 FA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거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몸값 인플레이션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구단의 시장과는 무조건 우승이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FA 선수 영입은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간 FA

성공사례로 인해 구단들은 거액임에도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연다.

이러한 FA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비상 식적이라는 데 야구관계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이를 개혁하자는데는 소극적이다.

양극화하는 프로야구

최근 삼성과 한화가 2조 원대의 빅딜을 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은 “지금 안 바꾸면 죽는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구단은 선수 1명에게 100억 원대의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야구단은 돈 한푼 벌어들이는 곳이 아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FA 시장에 나선다. 수익이 없는 만큼 성적으로 모든 것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FA 시장은 해외에 진출하는 선수가 부럽지 않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 구단들은 해마다 적자를 호소하는데 FA 시장은 점점 규모만 커지고 있다. SK 최정이가 연봉과 계약금을 포함해 4년간 역대 최고액인 86억 원, 연봉만 연평균 11억 원을 받게 된다. 프로야구 최저 연봉이 27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45배 이상을 받는 셈이다.

무명 선수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FA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기만 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김광현의 포스팅 금액이 200만 달러, 양현종은 15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 최고의 에이스트들이 20억 원 수준에서 빅리그 도전을 하고 있지만 국내 남아있는 선수들의 몸값은 50억 원에서 출발한다.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FA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이들이 기울인 노력과 땀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바뀌서는 안 된다.

메이저리저 커쇼를 배우자

FA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FA등급제, 유망주 저변 확대, 외국인 보유선수 확대 등 야구계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프로야구 출범 33년째를 맞은 코리안리저들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공헌과 역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한다. 챙기지만 말고 나눔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높은 몸값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모델이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다. 그가 위대한 선수로 칭송받는 이유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생애 세 번

째로 사이영상을 수상한 실력과 잡비에 애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2012년 ‘로베르트 클레멘테상’을 받았다. 올해 클레멘테상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지미 롤린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은퇴를 선언한 폴 코노코가 공동 수상했다. 롤린스와 코노코 역시 어린이와 학생들 삶의 질 향상, 불우한 환경의 아동과 가족들을 돕는데 앞장섰다.

로베르트 클레멘테상은 1972년 새해를 앞두고 니과라과로 지진 구호활동을 가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로베르트 클레멘테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평소 사회 공헌에 앞장섰던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나눔과 봉사정신을 실천한 선수에게 상이 돌아간다.

롤린스는 수상 소감에서 “메이저리저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클레멘테의 유산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한다”며 “메이저리저로서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코리안리저들도 롤린스의 수상 소감처럼 코리안리저가 되는 순간 청소년에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공헌에 대한 무게를 감당할 자격까지 부여받았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팬들에게 코리안리저의 품격과 가치를 증명해야만 FA ‘거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lion@kwangju.co.kr

은편칼럼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서 배울 것들



박홍근 앙림플랫폼 대표·건축사

라볼 수 있는 숙박동인데, 타원형 평면의 내부 중정엔 연못이 있다. 연못에 빛이 반사되어 환상적인 공간 연출하는 건물이다. 꼭 가보고 싶었다.

지난달 나오시마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꼭 들려야겠다고 맘먹었던 ‘오발’이라는 숙박동은 예석하게 근처도 못 갔다. 다른 건물처럼 최소한 외관이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은 접근 자체가 곤란했다. 왜냐면 그곳은 호텔 숙박객만 모노네일을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언덕위에 있기 때문이다. 단 서비스 차량만 반대편 언덕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준비 부족이었다. 전시회 감동 이후 16년간의 기다림은 아쉬움만 남기고, 멀리 언덕위에 있는 건물을 현지에서 구입한 책속의 사진과 맘으로만 보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이담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곳에서 허투밤을 묵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보리라 맘 먹어 본다. 그러나 이곳에서 안도 타다오의 건축과 예술가들의 작품만 보고 감동하고 만다면 본질을 못 본거나 마찬가지다.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으로 불릴 수 있게 된 본질을 알아야 할 것 같다. 그 역사는 1987년부터 시작된다. 베네세 그룹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의 주도명발한 계획과 섬세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의 결

실이다.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섬을 예술, 그것도 일반적으로 난해하다고 하는 현대미술과 접목하여 세상에 없는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냈다. 그 본질의 바탕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문화경영 마인드다. 후쿠타케 회장은 기업 활동의 목적은 ‘문화’이며, ‘경제는 문화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나오시마에 건축과 예술작품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문화사업을 전개했다. 지중미술관, 이우환미술관, 집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의 섬으로 만들 수 있었다.

둘째, 기획력과 지속성이다. 설계자와 작가들을 기획단계 부터 참여시켰다. 안도 타다오와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건축사, 미국의 대지미술 작가인 윌터 드 마리아, 빛의 작가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 이우환 작가 등등. 이들은 장소의 선정과 전시 방법, 공간의 크기 등에 대해 설계자 및 작가들과 공동 작업을 했다. 또한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꾸준히 문화경영 철학을 실천하면서 완성도를 높였고, 타 지역으로 예술공간을 확대해 가고 있다.

셋째, 지역 활성화 효과다. 장소성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었다. 예술가들이 직

접 섬을 방문하여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했다. 건축물은 그곳의 자연과 전시작품에 적합한 형태와 공간으로 지어졌다. 주민참여를 통해 예술과 지역사회의 접점을 강화시켜 마을 만들기 활동에 자극을 주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생기도록 배려했다.

우린, 이 지역사회는 어찌하고 있는가? 문화경영 마인드로 실천하는 기업은 어디에 있으며, 문화행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간의 사업 중 좋게 평가 받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 중 오랫동안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은 있는가? 무언가 있을 것도 같은데 머릿속에서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무지 탓인가?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숨은 진주를 찾아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나오시마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기억하라 0416



김성진 영암MART 대표

연 후 3주 만에 가게 됐다. 꼭 찾아가 보겠노라고 정혜신 박사와 약속했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려 했는데 연락처와 주소부터 찾기가 힘들었다. 쉽게 인터넷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올라 있지 않은 거다. 물어 물어 몇 번의 전화와 검색을 통해 안산의 ‘치유센터 이웃’의 주소만 알아냈다. 무작정 안산으로 갔다. 나는 과일장사라 공판장에서 일할까 마치고 포도와 사과, 귤 등을 잔뜩 싣고 안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정혜신 박사와 부군인 이명수씨를 만났다. ‘치유센터 이웃’은 아름다운 재단과 한겨레 21의 공동캠페인인 ‘기억 0416’ 모금액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란다.

‘치유센터 이웃’에 들어서니 한쪽에 탁트인 부엌이 있었고 그곳에는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내느라 분주했다. 거실에는 개다리 소반이 여러 개 놓여있고, 자원봉사자들은 방문객들에게 먹을거리를 내놓았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큼직한 그림이 걸려있었는데 김진두 화백이 제작들과 함께 그린 붉소풍이란 그림이었다.

언 듯 저 큰 그림이 어떻게 이 공간에 들어왔을까 싶었지만 그림이 너무 커서 표구 작업을 센터 안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눈이 시릴듯한 별들이 하늘에 깔려 있는데 한지 장지 기법으로 7겹을 겹쳐서 그린 기법으로, 별은 조개를 갈아서 만들

었다. 그 아래에는 어린이들이 울방 잘 망 무리를 지어가며 붉소풍을 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 그림을 보며 치유를 받는다고 했다.

이 그림을 보면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이 그림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와 닮았다.”라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의 모습을 생 각하고 별빛처럼 쏟아지는 그림자를 달래며 웃고 울며 서로 이야기하고 치유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치유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지원금 40억 원을 받아 안산사에서 운영되는 ‘트라우마 센터’라는곳은 단순히 외상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거다. 그곳이 이곳과 다른 점은 ‘치유센터 이웃’은 유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하며 마음을 달래는 곳이 라는 거다.

인상깊었던 것은 개다리 소반이다. 거실바닥에 개다리 소반이 여러 개 놓여있었고, 이곳을 방문하는 유가족들에게 간식거리와 집밥을 제공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정혜신 박사 부부는 이곳을 친정집처럼 만드는 것이 컨셉이라고 했다. 맘 편하게 와서 쉬어가면서 음식을 먹으며 치유받는 곳. 잠시 후 엄마들은 음식을 하는 것을 죄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내 아이는 이 세상에 없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다. 그런 날들

이 이어지면 몸을 버리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나를 고민한 게 집밥을 만들어 먹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실제같이 음식을 만들어 내오고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필자도 형을 잃은 기억이 있다. 80년대 민주화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나의 형은 행방불명됐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를 잃어 버렸고 울며 서로 이야기하고 치유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치유공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지원금 40억 원을 받아 안산사에서 운영되는 ‘트라우마 센터’라는곳은 단순히 외상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거다. 그곳이 이곳과 다른 점은 ‘치유센터 이웃’은 유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하며 마음을 달래는 곳이 라는 거다.

인상깊었던 것은 개다리 소반이다. 거실바닥에 개다리 소반이 여러 개 놓여있었고, 이곳을 방문하는 유가족들에게 간식거리와 집밥을 제공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정혜신 박사 부부는 이곳을 친정집처럼 만드는 것이 컨셉이라고 했다. 맘 편하게 와서 쉬어가면서 음식을 먹으며 치유받는 곳. 잠시 후 엄마들은 음식을 하는 것을 죄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내 아이는 이 세상에 없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다. 그런 날들

社說

홀로 사는 노인 불편 없도록 지원 늘려야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이 해마다 크게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독거노인에 비해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37만4565명 가운데 독거노인은 11만750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인 인구 전체의 31.4%에 이르는 수치로 전남 지역 노인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혼자 지내는 셈이다.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불편은 이것 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부분 농어촌에 거주하는 탓에 농사나 바닷일이 힘겨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취업이나 공부를 위해 자녀가 도시로 나간 경우가 많아 독거노인들은 심한 고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치매 노인도 갈수록 늘고 있다. 도내 치매 노인 수는 1만9439명으로, 전체

노인의 5.19%에 해당한다. 시 단위에서는 여수가 2366명, 군 단위에서는 장흥이 106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군 지역의 경우 미등록 치매 노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고통받는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지원은 점차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대책은 극히 부실한 실정이다.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이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도내 공립노인전문병원은 광양 등 12곳에만 설립돼 방안에 강구해야 한다.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이제 지자체는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주선 같은 현실적인 대안도 시급하다.

도내 펜션·민박 안전불감증 여전하다니

전남도가 담양 펜션 화재 참사를 계기로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증축·용도 변경은 물론 보험 미가입, 소화시설 미비치 등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이다.

도가 최근 펜션 8곳, 관광생활형 숙박시설 10곳, 농어촌 민박시설 5곳, 관광농원 3곳 등 숙박시설 26곳을 표본 추출해 실시한 점검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건수만 무려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 한 곳당 7.5건이나 되는 셈이다.

특히 담양 펜션처럼 건물을 무단 증축·용도 변경한 경우도 13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숙박시설도 5곳이나 됐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유도등·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숙박시설은 부지기수라고 한다. 전남 도내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이 4154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담양 펜션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불법시설물과 위반사항 등을 장기간 방치해왔다. 건물 결구, 대부분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증축·용도 변경은 물론 보험 미가입, 소화시설 미비치 등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이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사고가 난 뒤 숙박시설의 안전 점검과 후속조치를 내세웠다고 법석을 떨며 뒷북을 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비규정의 실내 설치 불허 등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숙박시설업주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후진국형 인재(人災)에 당할 수만은 없다.

無 等 鼓

기원 전 549년의 어느 아침, 아테네의 집정관인 솔론(Solon)은 중앙광장에 운집한 시민들 앞에 걸어나와 몇 장의 목판을 펼쳐보였다. 그 유명한 ‘부채탕감 법령’이 새겨진 목판이었다. 발표한 법령에 따라 솔론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을 즉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켰다.

또 기원 전 549년의 어느 아침, 아테네의 집정관인 솔론(Solon)은 중앙광장에 운집한 시민들 앞에 걸어나와 몇 장의 목판을 펼쳐보였다. 그 유명한 ‘부채탕감 법령’이 새겨진 목판이었다. 발표한 법령에 따라 솔론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을 즉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켰다.

또 기원 전 549년의 어느 아침, 아테네의 집정관인 솔론(Solon)은 중앙광장에 운집한 시민들 앞에 걸어나와 몇 장의 목판을 펼쳐보였다. 그 유명한 ‘부채탕감 법령’이 새겨진 목판이었다. 발표한 법령에 따라 솔론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을 즉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켰다.

또 기원 전 549년의 어느 아침, 아테네의 집정관인 솔론(Solon)은 중앙광장에 운집한 시민들 앞에 걸어나와 몇 장의 목판을 펼쳐보였다. 그 유명한 ‘부채탕감 법령’이 새겨진 목판이었다. 발표한 법령에 따라 솔론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사람을 즉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켰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